2019 KBL 신인드래프트 선발권 추첨식 현장

"기대 안했는데"…1순위 잡은 현주엽 감독

〈창원 LG〉

고려대 센터 박정현 1순위 유력
LG, 김종규 빈자리 메울 가능성
2순위 KGC…삼성 3순위 당첨

창원 LG는 28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9 KBL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순위 추첨 행사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했다. 200개의 구슬 가운데 10개뿐이었던, 5%의 확률을 뚫고 기쁨을 누렸다. 현주엽 감독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L

창원 LG가 2019 KBL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 선발권을 손에 넣었다.

LG는 28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진행된 '2019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순위 추첨식'에서 전체 1순위 선발권의 행운을 잡았다. 다음달 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KBL 신인선수 트라이아웃&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선수를 선택할 있는 권리를 얻었다. 각 구단 스카우트 평가에 따르면 고려대 센터 박정현(23·204cm)이 유력한 전체 1순위 후보다.

LG 현주엽 감독(44)은 1순위 선발권을 확보했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2승7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탓인 듯 했다. 현 감독은 "내심 3, 4순위만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행사장에 왔다. 1순위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다음주까지 시간이 있으니 잘 고민해서 선택하겠다"고 원론적으로만 얘기했다.

LG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원주 DB로 이적한 김종규(28·207cm)의 빈 자리가 워낙 커 박정현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는 시간이 지배적이다. 박정현은 마산 출신으로 창원을 연고지로 하는 LG와 여러 부분에서 잘 어울린다.

전체 2순위는 안양 KGC의 몫이었다. KGC는 지난해 신인드래프트에서도 2순위 선발권을 가져갔다. KGC 김승기 감독(47)은 "2년 연속 딱 한 순위가 모자라다. 오세근의 뒤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좋은 센터가 필요했다"라고 아쉬워한 뒤 "2순위도 나쁘지 않다. 고민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과 고양 오리온은 각각 3, 4순위 선발권을 확보했다. 삼성과 오리온은 상위 순번 팀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즉시 전력감과 미래를 위해 성장시켜야 할 자원 선발을 놓고 고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PO) 진출에 실패해 내심 1~4순위 선발권을 기대했던 서울 SK와 원주 DB는 각각 5, 6순위로 지명을 하게 돼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 부산 KT, 전주 KCC, 인천 전자랜드, 울산 현대모비스는 7~10순위로 선수를 선발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스텝은 타~닥이 아니라 타닥" 어록제조기 전랜 유도훈 감독

유도훈 감독

인천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52)은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 직후부터 홈경기에서 마이크를 착용하고 경기를 치른다. KBL 주관 방송사가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고, 전자랜드와 유 감독이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결과다. 경기 도중 벤치에서 뿐 아니라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선수들과 나누는 얘기와 장면도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전달된다. 달변가 유 감독이라 더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유 감독은 지난 시즌 도중 작전타임에 선수들에게 "'떡 사세요'만 할 거야"라고 호통을 쳤고, 이 영상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랬던 유 감독이 선수들의 체력에 관해 설명하며 또 하나의 명언을 남겼다. 그는 27일 원주 DB와의 홈경기에 앞서 라커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40분 뛸 준비가 됐다고 한다. 하지만 40분을 어떻게 뛰느냐가 중요하다. 대충 뛰면 나도 40분을 뛸 수 있다"며 웃었다. 그런 뒤 유 감독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나갔다. 그는 "선수들이 코트에서 스텝을 밟을 때 빠르게 '타닥'하고 소리가 난다. 그런데 스텝 밟는 소리가 '타~닥'하면 그 선수는 지친 거라고 봐야 한다. 40분 뛸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사실 유 감독의 말은 농담 반, 진담 반이었다. 취재진이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든 것이었다. 하지만 전자랜드 선수들은 경기나 훈련 때 스텝에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듯하다. 최용석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가드진 도미노 부상…DB, 선수 운용 재검토

허웅 이어 김현호도 부상자 명단
김태술·김민구 체력관리에 심혈

원주 DB는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개막 이후 5연승을 내달리다 최근 3경기에서 1승2패로 주춤하며 서울 SK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고민은 있다.

DB는 가드 포지션에서 부상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가용인원이 줄었다. 이번 시즌 전 포지션에 걸쳐 선수들을 대거 돌려가며 활용하는데 허웅(26·185cm)에 이어 김현호(31·184cm)까지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27일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김태술(35·180cm)과 김민구(28·190cm)의 출전시간이 대폭 늘었다. 스타팅멤버로 원종훈(23·174cm)을 기용했지만 경기가 박빙의 승부로 이어져 김태술과 김민구가 코트에 서는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DB는 이날 경기를 전자랜드에게 내줬다.

DB 이상범 감독은 "가용인원이 충분했던 시즌 초반에 비해 부상자 발생으로 김태술과 김민구의 출전시간이 갑자기 늘었다"라며 "(부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 우려된다.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선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잘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시즌을 길게 보고 가야하는데 1~2경기 이기려고 무리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DB의 허웅과 김현호는 복귀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김현호는 부상이 심하지 않지만 발목을 다친 허웅은 회복이 늦어지면서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술과 김민구는 DB로 이적하기 직전 시즌에 전 소속팀에서 출전시간이 많지 않았던 선수들이다. 이들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게 DB 코칭스태프의 판단이다. 부상이라는 변수를 만난 DB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4쿼터 힘낸 베테랑…신한은행 시즌 첫 승

김수연·김단비·이경은 릴레이 득점
김이슬, 친정 KEB 상대 3점슛 4방

안산 신한은행이 부천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올렸다.

신한은행은 28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KEB하나은행과의 원정경기에서 4쿼터 베테랑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87-75로 승리, 2연패 끝에 시즌 첫 승을 수확했다.

여자프로농구는 전력 양극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하위권 전력으로 평가 받는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 BNK썸 등은 1승이 귀하다. 비슷한 전력 팀간 경기에서 패할 경우, 장기 연패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날 만난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서로에게 승리할 기회이자, 연패의 위험이 있었다. 접전이 이어지던 경기는 3쿼터 중반부터 신한은행이 주도권을 잡았다. 양 팀이 47-47로 팽팽하게 맞선 3쿼터 중반 신한은행은 비키 바흐(17점·6리바운드)의 골밑 득점, 김이슬(12점)의 3점슛 등으로 점수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김단비

4쿼터에는 베테랑들이 힘을 냈다. 경기 내내 수비와 리바운드 등 궂은일에 힘을 기울였던 김수연(10점·16리바운드), 한 채진(9점·5리바운드·4어시스트), 김단비(14점)의 중거리 슛이 터졌다. KEB하나은행이 잠시 흐름을 탄 경기 종료 6.37초 전에는 이경은(15점·3점슛3개)이 3점슛을 성공시키며 추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경은은 팀이 76-65로 앞선 경기종료 4분22초전 다시 한 번 3점슛을 성공, 승리를 굳혔다. 오프시즌에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KEB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적한 김이슬은 3점슛 4개 포함, 14점을 기록하며 친정에 뼈아픈 패배를 안겼다.

KEB하나은행은 BNK와의 개막전 승리 후 2연패에 빠졌다.

부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메이저리그 〈28일〉

월드시리즈 (7전4선승)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ALCS (7전4선승)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 NLCS (7전4선승)
X 0-7 O	X 4-5 O	O 2-0 X
O 3-2 X	X 3-12 O	O 3-1 X
O 4-1 X	O 4-1 X	O 8-1 X
O 8-3 X	O 8-1 X	O 7-4 X
X 1-4 O	O 7-1 X	
O 6-4 X	6차전:30일	
	★7차전:31일	

휴스턴 양키스 워싱턴 세인트루이스

※ 한국시간 ※ ★표는 필요시 경기

프로골프 〈28일〉

•PGA TOP10

조조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①우즈(미국)	-19	②히데키(일본)	-16	③임성재(한국)	-13
③맥길로이(북아일랜드)	-13	⑤우드랜드(미국)	-12	⑥호셸(미국)	-11
⑥코너스(캐나다)	-11	⑧안병훈(한국)	-10	⑧하웰III(미국)	-10
⑰강성훈(한국)	-7	㊲김시우(한국)	-2	㊸박상현(한국)	+4

여자프로농구 〈28일〉

•2019-2020 하나원큐 W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KB스타즈	3	3	0	1.000	0	3승
2	삼성생명	3	2	1	0.667	1	1패
2	우리은행	3	2	1	0.667	1	2승
4	신한은행	3	1	2	0.333	2	1승
4	KEB하나	3	1	2	0.333	2	2패
6	BNK 썸	3	0	3	0.000	3	3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쏜튼	KB스타즈	25.0	① 박혜진	우리은행	6.3	① 그레이	우리은행	14.0
② 단타스	BNK 썸	22.0	② 안혜지	BNK 썸	5.3	② 김한별	삼성생명	11.7
③ 강이슬	KEB하나	20.5	③ 김한별	삼성생명	5.0	② 박지수	KB스타즈	11.7
④ 그레이	우리은행	17.0	③ 한채진	신한은행	5.0	④ 마이샤	KEB하나	11.0
⑤ 카이저	삼성생명	16.7	⑤ 김정은	우리은행	4.7	⑤ 김수연	신한은행	10.7

•경기결과

KEB하나 (1승2패)	75	35	17 - 23	37	87	신한은행 (1승2패)
			18 - 14		
			18 - 21		
		40	22 - 29	50	

해외축구 〈28일〉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아스널	2 - 2	크리스탈팰리스	리버풀	2 - 1	토트넘
뉴캐슬	1 - 1	울버햄튼	맨체스터Utd.	3 - 1	노리치시티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레알소시에다드	1 - 0	셀타비고	그라나다	1 - 0	베티스
에스파뇰	1 - 0	레반테	오사수나	3 - 1	발렌시아
세비야	2 - 0	헤타페			

NHL 〈28일〉

•경기결과

플로리다	6 - 2	에드먼턴	St.루이스	5 - 4 (연장)	디트로이트
오타와	5 - 2	새너제이	뉴욕I	5 - 3	필라델피아
보스턴	7 - 4	뉴욕R	시카고	5 - 1	LA
베가스	5 - 2	애너하임			

NFL 〈28일〉

•경기결과

LAC	17 - 16	시카고	잭슨빌	29 - 15	뉴욕J
인디애나폴리스	15 - 13	덴버	휴스턴	27 - 24	오클랜드
시애틀	27 - 20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31 - 13	버펄로
디트로이트	31 - 26	뉴욕G	테네시	27 - 23	탬파베이
LAR	24 - 10	신시내티	뉴올리언스	31 - 9	애리조나
샌프란시스코	51 - 13	캐롤라이나	뉴잉글랜드	27 - 13	클리블랜드
그린베이	31 - 24	캔자스시티			

아마추어 경기결과 〈28일〉

배드민턴 ●2019 프랑스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프랑스 파리)
•여자 단식 결승전=안세영(한국,금메달) 2-1 마린(스페인)
•여자 복식 결승전=이소희,신승찬(한국,금메달) 2-1 김소영,공희용(한국,은메달)

정구 ●제 16회 세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중국 타이저우 스포츠 센터)
•남자 단식 결승전=김진웅(한국,금메달) 4-0 니우주다(중국)
•여자 단식 결승전=유유안위(중국) 4-2 송지연(한국,은메달)

경기 예고

남자프로농구 〈29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오리온	〈고양체육관〉	전자랜드

오후7시, SPOTV2

프로배구 〈29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인삼공사	〈대전충무〉	흥국생명

오후7시, SBS스포츠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현대캐피탈	〈천안유관순〉	한국전력

오후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29일〉

테니스 ●2019 ITF 월드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겸 제 74회 한국 테니스 선수권대회(서울특별시)

배드민턴 ●2019 밀양 원천요넥스코리아주니어오픈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경남 밀양시,오전9시)

toto 오늘의 토토 〈29일〉

•농구토토 매치 46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0.29 (화) 19:00	오리온스 vs 전자랜드	고양체육관